

제 22 호

제 2 부활주일

(사백주일)

1973. 4. 29

순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강론】



용서를 받을 것이고

안복진 신부

오늘은 부활후 제 이주일이며 아울러 사백 주일입니다. 사백(白)이란 말은 벗을 사(卸)자와 흰색(白)자 즉 흰 의복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부활시기에 영세한 신자들에게 흰 의복을 입혔다가 사백주일에 벗겼습니다.

지금도 성세 예절을 행할 때 영세자들의 이마에 하얀 포를 씌우는 예식이 있는데, 성세 성사를 받음으로 죄로 더러워졌던 마음이 흰포와 같이 결백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더러워지기 쉬우니 영세할때에 깨끗하게 된 마음을 다시 죄로 더럽히지 말고 주의하여 잘 보존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가 영세할 때에 비록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약한 인간인지라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영세한후 범한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중 몇 사람이 구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영세후에 범한 죄도 사하는 방법을 제정하시었는데 이것이 곧 고백 성사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 성경은 예수께서 고백 성사를 세우신 말씀을 똑똑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신을 받으라, 너희들이 사람의 죄를 사한즉 사하여 질것이요, 사람의 죄를 머뭇른즉 머물러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사도들에게 사죄권을 주셨고, 또 죄를 사하는 제도인 고백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은 신자로써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백성사는 가장 필요한 성사임을 알고 고백성사의 중대성을 잘 깨닫고 특히 고백성사에 대한 교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구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고백성사에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죄권을 부인하는것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이 세상 끝마치는 날까지 계속하는것을 부인하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신 최대의 사명이 우리 인간의 최대 불행인 죄를 제거하는데 있었으며, 범하는 인간의 죄를 고백성사를 통하여 사하여 주시도록 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제도인 고백 성사를 부인하는 것은 곧 구속사업의 계속을 부인하는것임을 잊지 말고, 신자 여러분은 구속공로를 얻어입어 구명하려고 하면 고백성사를 자주 잘 받아야 합니다. (중앙성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갓난아기 같이 너희도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로써 너희는 자라나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알렐루야.

□ **제 1독서** (사도행전 4:32-35, 성서 P. 273)
신도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다.

□ **찬가송** ◎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옴기에 우리 눈에 놀랄게만 보이나이다. 이 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찬미를 추자. ◎

□ **제 2독서** (요한 1서 5:1-6, 성서 P. 549)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긴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었으나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자는 참 행복하다. ◎

□ **복음** (요한 20:19-31, 성서 P. 259)

팔일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

□ 신자들의 기도

1. 참으로 부활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우리의 평화를 빌어 주신 주여, 우리를 모두가 진정한 평화의 기쁨을 얻는 일에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
3. 다시 오시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주여,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

■ **맺음기도** 죽음을 이기신 주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것이 소멸되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와지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 **영성체송** 네 손으로 이 못 자국을 짚어보아,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이 주간의 성경 ※

- 30(월) 독서 (사도행전 4:23-31, 성서 P. 273)
복음 (요한 3:1-8, 성서 P. 207)
- 1(화) 독서 (사도행전 4:32-37, 성서 P. 273)
복음 (요한 3:9-15, 성서 P. 207)
- 2(수) 독서 (사도행전 5:17-26, 성서 P. 275)
복음 (요한 3:16-21, 성서 P. 208)
- 3(목) ※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독서 (고린트전서 15:1-8, 성서 P. 398)
복음 (요한 14:6-14, 성서 P. 243)
- 4(금) 독서 (사도행전 5:34-42, 성서 P. 276)
복음 (요한 6:1-15, 성서 P. 215)
- 5(토) 독서 (사도행전 6:1-7, 성서 P. 276)
복음 (요한 6:16-21, 성서 P. 216)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가 세운 공소

무주 구천동이라면 대한민국의 벽지로 통한다. 가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첩첩산중이라, 보이느니 새 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 뿐이다. 요사이에는 관광 붐을 타고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얼마나 했으면 왕조(王朝)시대에는 귀양살이의 요지로 활용(?)이 되었을까? 그러한 무주에 새로운 공소가 세워졌다. 무주군 적상면 피목리에 공소가 세워진 것이다. 신부님 손이 제대로 매치기 어려운 벽지에 공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600~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무주군 적상면 피목리에 는 약 60여명의 교우가 있다. 이 벽지 교우들의 신앙 생활에 보탬을 주자고 뽀뽀이 모든 살림을 아끼없이 털어 바친 할머니가 있어 그들에게 빛을 밝혀 준 것이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자>고 사재 195만 원을 내놓으신 할머니는 서울 혜화동 본당의 김 윤업(마리아 63세)씨이다. 매지 495명에 건평 42평의 아담한 공소가 낙성되어 축성된 것은 지난 4월 8일이다. 그날이야말로 무주본당의 축제일이었던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있어서 한가지 섭섭한 것은 김마리아 할머니의 사진을 실지 못하는 일이다. 당신의 뜻은 이일을 자랑삼아(?) 발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추어져 들어나지 않는 것 없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은 알려져야 한다.

돈을 벌기 보다는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옛부터 이르기를 <돈이 그때의 하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는 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때 있다>고 했다. 사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돈을 멋있게, 그리고 맛있게 쓰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김마리아 할머니 처럼.

금년을 사재 양성 후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해이다. 티끌이 모아 태산을 이루듯 뽀뽀이 모아진 성금은 이제 800여만원이 되었다. 조금도 더 성의를 모으면 목표액 2,000만원 달성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 같다.

서울의 할머니가 전주교구에 공소를 세우는 판에, 우리 교구 사제마저 다른 교구에서 양성해주시기를 바라야 할까?

□ 양지쪽 □



어머니

나의 무릎을 베고 마지막 누우시던 날,
쓰린 피로움을 말로 차마 못하시고
매었던 웃고름 풀고 가슴내어 뵈이더라.

까만 젖꼭지는 옛날과 같오오이다.
나와 나의 동기, 어리던 팔 구 남매
따뜻한 품안에 안겨 이 젖 물고 크더이다.

(이병기/가람 문선)

5월은 어머니의 달(月)이다. 생명의 불기운이 온누리를 신록으로 뒤덮는 5월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어머니의 달이다. 어머니는 우리의 모두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기 때문에, 열두달 가운데 가장 화창한 5월은 어머니의 달이어야 한다. 온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게는 더욱 그렇다.

잠이 험한 나는 항상 내 어머니의 잠이 되어 있다. 더구나 그리 건강하지 못한 나인지라, 침대에서 흘러내린 이불이며 연탄불이 내 어머니를 더욱 걱정시키는 모양이다. 잠결에도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손길보다 더 포근한 것은 없는성 싶다. 보통으로 귀가가 늦은 나를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행복감이 가슴을 덮는다. 요사이에는 그나마 여러날을 집에 못 들어가 어머니께 끼쳐드리는 걱정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다.

어머니는 누구나 그 자식들을 사랑한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여성은 다 그런가 보다. 가마귀도 새끼가 가장 예쁘다는데, 인간의 그것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부모님들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일이 있다. 태아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때 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이 눈을 잠으실 그때까지 우리들은 항상 어머니의 잠이 되는가 싶다.

5월은 성모성월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 공경을 드리는 달이다. 인류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신 성모마리아를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으로 주셨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성모님을 찾는다.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시여, 평화의 어머니이시여, 지금 과거 끝날에 우리를 기억하소서 (잡)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우라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2212 ㉡7071)
김병구(빈첸시오)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 화장☆

결혼 미용실

교우들에게 특별 봉사

이현주(메레사)
전화 ㉠ 6794
중앙성당 앞

* 대화의광장

* 잔디밭



여성을 위한 고언(苦言)

이 승 현 (베드로)

우리 옛날에 참 아름다운 것이 들어 있다. 하나는 <애끼는 건 떠로 간다>요, 또 하나는 <자랑 끝에 불난다>다. 어떻게 보면 여자는 애끼는 것이요. 자랑하는 것인 것 같다. 애끼고 자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또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자는 그와 정 반대이다. 애끼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바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고 겸손한 것이야 말로 여자다.

그런데 오늘 도시의 여성이란 여성 처럼 수집음을 모조리 팔아먹고 자랑하며 바질 줄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풍조는 어디에서 수입해 왔을까. 무릎에도 차지 못하는 스커트를 입고 버스간에 앉아, 그래도 인간 본성이 채 없어지지 못해서, 그것을 잡아다려 덮으려 애를 쓰지만 그것이 어찌 덮어질리 있으며, 정말 부끄럽어서라 할까. 오늘의 젊은 여성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귀비와 심청이 어느 사람이 더 아름답던가? 크레오파트라와 잔다르크가 그 누가 더 향기 높던가? 살로메와 마리아가 그 누가 더 정말 성스럽게 여자답던가? 생각해 보자. 촛불은 타는데, 빛이 있고 월자탄은 파괴되는데, 힘의 방사가 있다. 젊은 여성들, 당신네들아 어머니

요 주인이다. 나무로 말하는 가지와 이파리보다 뿌리의 시대다. 그러기에 가장들이 당신네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집 안주인> 이라고 하지 않던가? 집은 당신네들의 것이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당신네들의 책임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나자렛> 가정을 겸손되어 본뜬이다. 즉 다시말해서, 성가정(聖家庭)을 꾸미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나자렛의 정신이 없이는 성가정을 꾸밀 수 없으며, 나자렛의 정신이 없는 당신네들의 가정이 불행한 사람들이 모인 합숙소에 불과 할 것이다> 이 말은 달콤한 말이 아니다. 분명히 쓰디쓴 말임에 틀림없다.

허나 젊은 여성들, 당신네들을 가르켜 사랑의 여신(女神), 운명의 여신, 신화를 남긴 여인, 어머니 교회라고 하지 않던가. 종교는 여인. 젊은 여인은 신앙을 구가할 수 있는 뿌리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제명을 잊었는가. 이 삭막해진 오늘이란 광장에 신앙과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사명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천지를 창조했으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사 희생으로서, 정사(釘死)하신 것이다.

하느님의 딸들인 여러분, 그리고 당신네들의 근본은 모성(母性)이요. 오늘에, 또는 내일에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당신네들의 젊은 그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자랑없이 하느님을 위하여, 즐겨 바치지 않겠습니까? 당신네들의 몸, 마음을 다 불살라 하느님의 제단앞에 영원한 불길이 되지 않으렵니까? 젊은 여성들, 당신네들은 피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썩은 냄새나는 오늘의 우리 수난의 여왕, 우리 엄마를 살려내자.

(필자: 시인, 전 월간 약진전북 문예부장)

사제 양성 후원 기금 예약 현황

김 제 천주교회	100,000원
남 원 천주교회	150,000원
대 야 천주교회	200,000원
북 자 천주교회	1,265,000원
서학동 천주교회	746,400원

누계 8,770,400원

전 동 천주교회	1,790,000원
중 양 천주교회	2,519,000원
진 안 천주교회	1,000,000원
월명동 천주교회	750,000원
화 산 천주교회	250,000원

감사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30일 (월)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1일 (화) 외국 문화 교실 (독어)
- 3일 (목)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4일 (금)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알림

젊은이의 광장 (성경교실) 임시 휴강

담당하시는 유 장훈 신부님이 서울 연수회 참석 관계로 5월 1일부터 당분간 휴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축 부 활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 축 부 활 *

동남 샵프

T V
냉장고
선풍기

전 주 대 리 점

전 화 ②8121

여 요 셉(운참)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사회 분과 위원회 (오늘 밤 8시 덕진성당) 각 본당 사회부·차장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전주 북부 울뜨레아 (4월 30일<월> 오후 8시반, 중앙) 노송동, 덕진, 중앙 본당의 구르살리스타 형제들은 4월 울뜨레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덕우, 지도신부 안부전)
3. 가톨릭 방송 안내
M.B.C. 방송국은 4월 2일부터 매일 아침 7시 5분부터 10분까지 <사색의 오솔길>이라는 가톨릭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진소 신부님께서 방송에 수고해 주십니다.
4. 성소 주일 행사 안내 (전주 시내 합동)
 - ① 주일 학교부-5월13(일) 오후 3시, 중앙성당
 - ② 중·고등부-5월13(일)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 ③ 노인부-5월14(월)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 ④ 일반부-5월14(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아침미사6부

1.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 후)
성당에서 경품놀이와 시상도 있음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 후)
3. 고등부 학생회 춘계 소풍 (오늘 오전 8시 출발)
 - ① 장소-관촌 사선대
 - ② 준비-도시락, 교통비 150원
4. 북부 지구 울뜨레아 (4월 30일<월> 오후 8시반)
5. 사제 양성 후원비 적금 불입 요망
적금 불입 성적이 좋지 않으니, 약속한 날자에 꼭 불입하시어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6. 교무금 납부 요망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조속히 납부하시어 교회 사업에 협력합니다. (납부시에는 반드시 교무금 카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7. 마리아 합창단 총회가 다음주 목요일 10시에 수녀원 회의실에서 있음.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성심 부녀회 (5월 4일<금> 10시 미사후)
7. 주일학교 봄 소풍 (다음주일 9시)
어버이날 행사를 겸한 봄 소풍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도시락 준비)
☆ 축 결혼 ☆ (4월 30일 정오)
최일웅(야고버) 군과 김영숙 양
□ 부활 축일 봉헌금 68,084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학생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프람치스코 형제회 월례회 (5월 6일)
4. 미사시간 변경 안내
주일-6시, 10시, 오후 8시
평일-오후 8시 (금-오전 10시, 토-오후 6시)
□ 부활 축일 봉헌금 28,51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주일학교 봄 소풍 (다음주일 9시)
본당과 공소 어린이의 합동 소풍에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준비)
2. 프름 양지회 정기총회 (5월 2일<수> 오후 9시)
3. 중·고등학생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오늘 공식 미사후)
4. 부녀자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6. 신용조합 가입신청서와 인감신고를 빨리합니다.
☆ 축 결혼 ☆
박종욱 군과 하명님 양 (5월 1일 11시)
나흥덕 군과 김정희 양 (5월 5일 11시)
□ 부활 축일 봉헌금 15,538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미사시간 변경 (5월 1일부터)
주일-오전 10시, 오후 8시 평일-오후 8시
2. 부활 판공성사는 5월중에 끝냅니다.
성사 보신분(남자 138명, 여자 314명) 452명
3.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오늘 전동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전동에서 있을 아치에스 행사에 활동 단원은 물론 협조 단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4. 사제 양성 후원비 적금 불입 요망
3·4월분 미납하신 분은 4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5. 5월 첫 화요일 유아 세례 연기
본당 사정으로 연기하오니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축 결혼 ☆ (4월 30일 11시)
신랑 유상열 군과 신부 이갑순(테레사) 양
※ 4월 30일 저녁미사 없음.
□ 지난 주 성미 5말 4되 5홉 (누계 133말 6되 5홉)
부활 축일 봉헌금 22,305원, 감사합니다.
- ⑤ 5월은 성도성월
매일 저녁 미사후에 성모상 앞에서 공동 기도를 바치오니 많이 참석 하십시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5월은 성도성월
성도님을 열심히 공경합니다.
2. 반회합을 잘 합니다.
반 지도위원들은 철저히 반회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3. 레지오·마리에 아치에스 (오늘 전동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전동에서 있을 아치에스 행사에 활동 단원은 물론 협조 단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4. 성가 연습을 잘 합니다.
성가대원들께서 부활절에 잘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합니다.
5. 건진 성사 희망자 등록 (오늘까지)
□ 지난 주간 교무금 32,250원
부활 축일 봉헌금 20,198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레지오·마리에 아치에스 (오늘 오후 2시)
활동 단원과 협조 단원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 L. M. 옥외 행사 (다음주일, 은석동 골짜기)
3. 미사 시간 일부 변경
주일-오전 5시반, 10시(공식), 11시(아동)
-오후 8시
평일-오전 5시반(월·화·목·금)
-오후 8시(수·토)
4. 교리시간 안내
예비신자-주일 공식 미사후 (수녀님 지도)
주일 저녁 미사후 (신부님 지도)
학생 예비자-토요일 오후 6시 (수녀님 지도)
주일학교-주일 오전 10시
중·고등학생-주일 공식미사후
□ 부활 축일 봉헌금 53,871원, 감사합니다.